

대담회 과거 40년 ... 미래 40년



김동수
대림산업(주) 토목사업본부 사장

대담회 창립 40주년이라는 뜻깊은 날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초대의를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물론 30년이 넘는 건설인생을 주로 도로 및 교량 분야에 몸담아왔던 저로서는 무슨 글을 써야 할지 난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. 하지만 대담회의 과거 40년을 돌아보고 어렵지만 미래 40년에 대한 소견을 정리해 보는 것도 필자나 회원 여러분에게 좋은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용기내어 몇자 적어 봅니다.

1960년대 초 국가재건을 향한 우리나라의 대담의 역사는 1973년 10월 우리나라 최대의 저수용량을 가진 중앙 심벽형 사력댐인 소양강 다목적 댐을 필두로 시작되었습니다. 대담회 역시 상기댐의 기술 및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1971년 10월에 설립되어 그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. 그 이후 대담 기술은 본회의 많은 회원분들의 노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, 평화의 댐 등에 적용된 표면 차수벽형 석괴댐(CFRD_Concrete Faced Rockfill Dam), 한탄강 홍수조절전용댐 등에 적용된 롤러다짐 콘크리트 댐(RCCD_Roller Compacted Concrete Dam) 등이 대표적입니다.

최근에는 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하는 친환경 댐 분야와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강우에 대비한 비상 여수

로 능력증대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적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. 또한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한 낙동강유역 대담 축조계획 및 실행경험을 통해 축적한 하천연계 댐 기술 및 수자원 종합화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 대항전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태국의 짜오프라야강 홍수 예방 및 물 관리 사업과 같은 글로벌 메가 프로젝트에도 유력한 입찰자 중 하나로 인식되는 등, 국제적으로도 그 기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.

이처럼 대담회는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댐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선도하였고, 국내 기술 보급을 통해, 국내 기업들의 기술수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. 지난 40년간 대담회의 역사가 곧 우리나라 댐 건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렇다면, 향후 40년을 바라보는 현시점에서 대담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?

국내 건설시장은 지난 40년간 가파른 성장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그 정점을 지나 정체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댐 축조기술보다는 유지관리기술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러한 국내 시장상황 및 기술 트렌드를 고려하여 국내 건설업체들은 최근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사업비중을 늘려가고 있으며, 유지관리기술



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.

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 대담 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본회의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

먼저, 국내업체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있어서 본회가 앞장서 그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. 국제교류 및 원조를 통해 해외 미개발 및 저개발 국가들의 수자원 확보계획을 적극 지원하고, 이를 위한 대담 건설 및 축조기술을 보급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대담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. 이같은 본회의 국제적 위상제고가 국내업체의 해외진출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.

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대담 축조기술 등을 더욱 더 발전시키고, 기술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. 특히, 향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유지관리 분야

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유지관리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.

대담회 40년간 수많은 업적들을 짧은 지면을 통해 하나하나 소개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. 수많은 업적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,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국내 대담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 국내 기술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. 또한, 향후 댐 유지관리 기술의 발전 및 국제화에 있어서 역시 본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

대담회! 찬란했던 과거 40년!
미래 40년의 영광을 기원합니다.